

디자인진흥원사

- 디자인나눔(사회공헌활동) 시작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와 공동 진행)
- 《중국 선전 문화산업페어》 및
《닝보 산업디자인전》 참가
- 디자인전문회사 중국시장개척단 파견
- 디자인대토론회 개최
- 디자인 주제 드라마 제작 지원,
SBS 주말드라마 <푸른 물고기> 방영
-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 MBN <대한민국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제작 방영
- 스펀퍼드-KIDP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한국 디자인사

- LG 프라다폰 출시
- 제1회 대한민국공공디자인 엑스포 개최
-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 본부 설치
- 『GRAPHIC』 창간
- 디자인단체총연합회 21세기
대한민국 디자인 선언 선포식(12. 26)

한국 사회사

- 박태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미터 금메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 태안원유유출사고 발생
-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달러 달성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 공헌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 그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오늘날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비롯해 디자인 분야 곳곳에서 사회를 위한 디자인 개념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닌다.

KIDP는 디자인이라는 핵심 역량을 가진 기관의 특색을 살려 과거부터 디자인 재능 기부와 디자인 체험 무료 교육 등 디자인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을 매년 시행해왔다. ‘디자인 나눔’은 이를 좀 더 체계화, 조직화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권익 보호와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한 인권, 환경 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의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 풀뿌리 단체와 NGO 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단체의 사업 홍보, 후원자 개발, 시민 캠페인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홍보 리플릿 및 브로슈어, CI 개발, 모금함 기부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첫해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장애인, 인권, 노인, 아동 관련 단체에 CI와 리플릿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디자

인 기부를 진행했으며, 이후 BI, 캐릭터, 패키지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로 확장하며 지원 대상을 늘려갔다. 수혜자 중심의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이나 복지 단체가 생산하는 제품디자인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외디자인나눔단’을 구성해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 밖에 2018년에는 윤리현장을 선포하고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윤리경영, 반부패, 사회적 가치 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및 국회포럼 등을 들 수 있다. 양산에 위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미래디자인융합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도 운영하며, ‘디자인은 학문이 아니라 실용 영역’이라는 신조로 시민이 직접 디자인을 경험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이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고령화 및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